

한국근현대 고승들의 신문담

용성 스님(1)

고봉 스님, 그대로가 화장세계입니다

용성 스님, 순전히 밥도둑이 아닌가!

용성(龍城, 1864~1940) 스님이 하루는 제자 고봉에게 물었다.

“고봉아, 화과원(華果院: 용성 스님이 함양 백운산에 세운 농장의 도리원(桃李園: 복숭아밭) 소식을 한 마디 일러라.”

“화과원에 도리가 만발하니, 그대로가 화장세계(華藏世界)입니다.”

용성 스님이 그 말을 듣고, “네, 이 늙, 뭐가 어찌고, 아찌! 이놈이 공부 깨나 해 안목이 열렸는가 했더니만, 순전히 밥이나 죽내는 밥도둑놈이 아닌가” 하고 몽둥이로 마구 때렸다.

고봉이 생각하기를, ‘내가 혹 이치에 맞지 않는 소리를 했나?’ 하고 스스로에 대해 의심을 했다. 그리고는 곧 스승께 여쭙었다.

“그렇다면 스님께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화과원에 도리가 만발하니, 그대로 화장세계로구나.”

화과원의 도리원 소식, 즉 깨달음의 경지에 대해 스승과 제자가 한 말은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같다. 그렇다면 과연 어디에 차이점이 있을까. 불법에 대한 안목(眼目)을 갖춰야만 똑같은 말에서도 천지현격(天地懸隔)의 차이점을 훤히 볼 수 있다.

이 문답에서 제자는 이미 나뉘는 안목을 갖춘 공부단계였지만, 스승이 던진 낚시밥을 냉큼 물고는 빠져나오지 못하고, 비등대는 가련한 물고기 신세가 되고 말았다. 제자는 바로 대답을 했지만, 스승의 시험에 걸려 자신의 견처(見處)에 대해 순간적으로 확신을 잃은 것이다. 이는 고봉 스님의 당시 경계가 체합적 증오(體攝)가 아니라, 이치로만 안 해(解)를 머물고 있었음을 뜻한다. 물론 용성 스

님의 대자대비(大慈大悲)한 몽둥이질로 고봉 스님은 깨달음을 얻게 된다.

깨달은 경지가 역대 조사의 견처와 같은지를 점검하는 말에 ‘신득급(信得及)’이란 말이 있다. 대해 선사 어록에 나오는 이 말은 증오와 해오를 가름하는 중요한 척도이다. ‘신(信)’이란 확신할 수가 있는나는 것

이며, ‘득(得)’은 그 경지까지 다 체합했느냐는 것이다.

이러한 신득급을 확인하는 문답은 ‘병정동자래구화(丙丁童子來求火)’라는 유명한 공안에서 보인다고 한다.

하루는 법안 문익(885~958) 선사가 그의 문하에서 감원(監院) 소임을 보면서도 한 번도 법문을 청하지 않는 보은원칙에게 물었다.

“나에게 묻지 않는 이유라도 있느냐?”

“전 이미 청림 화상 문하에서 한 소식을 얻었습니다.”

“그래, 어디 한번 말해보아라.”

“제가 ‘무엇이 부처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청림 화상이 ‘병정동자가 불을 구하려 왔구나’ 라고 했습니다. 그게 그 뜻을 알았습니다.”

“그래? 잘못 알았을까 두렵구나. 설명해 보거라.”

“병정(丙丁)은 (음양5행에서) 불(火)에 해당하니 ‘불이 불을 구한다’는 말입니다. 부처가 부처를 구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과연 너는 잘못 알았다.”

현적이 수긍하지 않고 일어나 나갔다. 그런데 생각할수록 깨닫지가 않아서, 다시 돌아와 법안 선사에게 물었다.

“무엇이 부처입니까?”

“병정 동자가 불을 구하는구나.”

이 말에 현칙은 크게 깨달았다.

김성우 객원기자



이치로 아는 것은 ‘해오’ ‘체합적 증오’ 얻을 것 강조

“간화선·위빠사나, 정·혜 닦는 점에서 같은 것”

居士禪의 리더들 ③ 불원 김열권 기사

푸르른 녹음이 짙어간 4월 26일, 대구 동화사 말사의 한 암자. 봄날의 햇빛이 따사롭던 이 날, 대나무 숲에 둘러싸인 산사는 병풍처럼 펼쳐진 팔공산을 배경으로 소담스럽게 자리 잡고 있었다. 지난해 상주 갑장산 토굴에서 만난 이후 4개월 만에 재회한 불원 김열권(52) 기사는 선방에서 홀로 좌선삼매에 들어 있었다.

선방에 붙어있는 지대방에서 읊미하는 한 잔의 보이차는 그야말로 선다일미(禪茶一味)의 세계로 이끈다. 차를 마시며 나누는 법담은 언제나 작은 기쁨으로 충만한 느낌이다. 5년 전까지만 해도 요가연수원, 정신세계원 등에서 활발하게 관법을 지도하던 그가 정진에만 매진하고 있는 까닭은 의외로 간단했다.

“이제는 수행 지도자들이 많아졌잖아요. 저도 제 수행을 감무리하고 싶어요.”

불원 기사는 1979년 선(禪)에 입문해 경봉, 성철, 향곡, 송담 스님 등 당대 선사들의 지도를 받으며 시종과 산사 토굴에서 10여 년 간 참선한 선객이었다. 간화선을 통해 힘을 얻은 그는 미진한 수행을 보충하기 위해 1990년 미안마 마하시 위빠사나 선원으로 출가,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미안마에서 비구계를 받았다. 태국, 미얀마, 말레이시아의 선원에서 관법 수행을 했고, 1992년 일본 시모노세키 모지 선원에서 정진했으며, 갑장사 조실 세운 스님의 지도하에 대승관법을 닦기도 했다. 수행경력만 해도 27년이나 된다.

불원 기사가 젊은 시절, 간화선 수행을 하게 된 동기는 소박했다. 사업에 성공해 유마 거사처럼 남을 돕겠다는 꿈을 꾸었다. 그래서 성철 큰스님을 찾아뵙고 재물이 되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스님은 ‘삼매 서근(三昧三斤)’이라는 화두를 주면서, ‘매일 108배 참회와 보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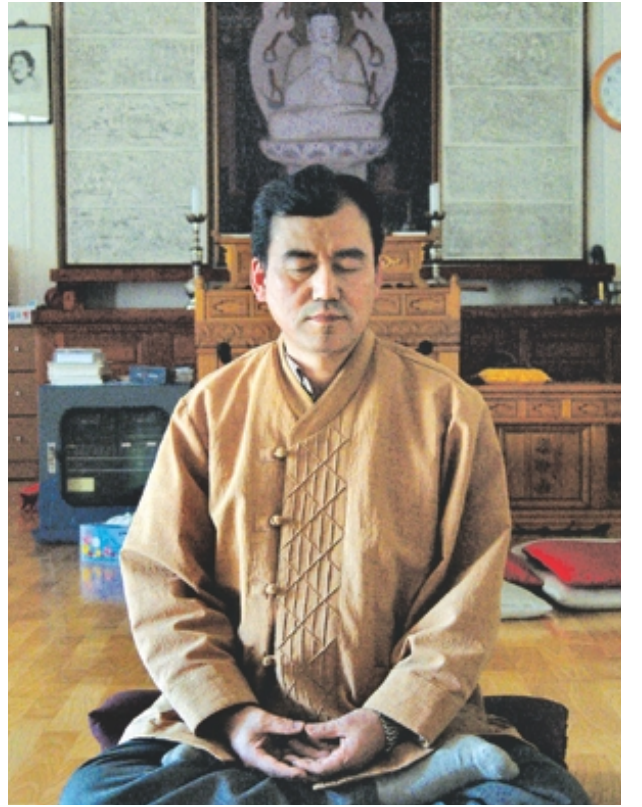
행을 하면 소원이 성취 된다’고 했다.

이후, 인천 용화사 송담 스님에게 지도를 받으면서 화두 참구의 요령을 체득한 그는 기아산업 무역부에 근무하던 시절, 하루 평균 18시간 화두를 붙들고 있을 만큼 애를 썼다. 화두가 잡히자 꿈에서도 화두를 놓치지 않을 만큼 용맹정진했다. 직장생활을 하며 5년, 직장을 버리고 산속에서 5년, 포박 10년간 계속해서 화두를 들었다.

간화선으로 힘을 얻은 후, 불원 기사는 거기에 머물지 않고 미얀마나 태국의 관법(위빠사나)을 두루 공부했다. 구도여행은 원효 스님의 대승관법을 복원하겠다는 발원 때문이었다.

“저는 한국 수행법의 원형을 원효사상에 찾습니다. 남방 관법이 아비달마의 아공·법유(我空法有)와 엄격하여 근거해 일신의 열반에 머무는데 반해, 원효 스님의 대승관법은 일심의 진여에 의지해 너와 내가 틀어 아닌 금강심지(金剛心地)에 머물면서 동체대비의 보살행을 지향합니다. 한국적인 관법을 복원해 간화선 수행에 힘

다. 중국, 일본은 대승 경전에만 의존하므로 <아람경>의 핵심 수행법인 12연기의 정밀성을 소홀히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원효 스님은 당시에 이미 <금강삼매경론>의 무상관(無常觀: 12연기관)과 무생관(無生觀: 오·유식관)으로 12연기와 5은 관찰법을 전승했습니다. 스님은 용성의 삼관(三觀: 假觀, 空觀, 中觀) 수행도 포함하면서 대승관법의 체계를 세웠지요.”



불원 김열권 기사는 원효 스님의 대승관법을 복원하겠다는 발원으로 여러 수행법을 섭렵하고 있다.

경봉·성철·향곡·송담 스님께 지도 받아 간화선·여래선 장점 회통한 ‘대승관법’ 수행 팔공산서 정진하며 원효의 수행법 복원 발원

을 보내고 싶습니다.”

위빠사나와 간화선의 연결고리인 동시·에 양자의 회통을 가능하게 하는 대승관법에 더욱 공경심이 있다.

“원효 스님은 7세기 대승불교에서 가장 완벽하게 붓다의 관법을 정립한 분입니다.”

과 남방 위빠사나를 전혀 별개의 것으로 보는 이들이 많지만, 불원 기사는 정(定, 止, 사마타)과 혜(慧, 觀, 위빠사나)를 함께 닦는다는 점에서는 양자가 다른 것이 아니라고 본다.

“남방에서는 무아(無我) 위주의 현상관(隨觀) 중심이고 북방에서는 공을 중심으로 하는 불성의 본성관(眞觀) 위주입니다. 남방에서는 오온 구성 요소의 변화 속에서 무상, 고, 무아의 현상을 관찰했고, 북방에서는 오온과 열반을 하나로 보아 본성을 직관(直觀)함으로써 공을 취했던 것입니다. 현상과 본체는 불꽃과 빛처럼 둘이면서 하나이기 때문에, 그 중 하나만 철저하게 꿰뚫어 보면, 본래 있는 참 나인 열반은 발견되는 것입니다.”

불원 기사는 화두로 깨쳤다면 그때는 자동적으로 반야관이 완성된다고 본다. 깨달은 아라한이나 붓다는 한 걸 같이 자비와 반야관을 실현했으며, 달마 대사로부터 육조 스님 이전의 초기 선종인 여래선(如來

清淨禪)은 대승관법의 원리를 담고 있다는 것이다. 후기 선종사에서 간화선이 형성되면서 나타난 일부 수행자들의 선병(禪病)은 대승관법을 통해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영명연수 선사는 <종경록>에서 깨치고 나서도 마음의 생·주·이·멸을 알아야 한다며, 4년째 관법을 강조했습니다. 선종, 특히 후대의 간화선에서는 너무 공관(空觀)에 치우치면서 유식(唯識)을 경시했기에, 유식관법에서 수행체계를 보완해야 합니다. 대승의 유식관법이 거의 단절되었으므로 남방의 12연기관을 보완하는가, 천태지자 대사의 지관법이나 초기 선종 선사들의 수행법, 원효 <대승기신론소>의 자성 진여관, <금강삼매경론>의 무생관 등에서 수행체계를 복구해야 합니다. 특히 자비관과 원효의 6바라밀 수행은 깨달음만 강조하는 한국 선수행의 보완점이라 생각합니다.”

불원 기사는 통불교의 전통이 강한 한국에서는 간화선과 위빠사나가 함께 발전하리라고 본다. 그래서 대승경전에 입각한 화두선과 관법이 조화롭게 체계화 되는 데 일조할 계획이다. 그의 조용한 노력의 간화선 수행체계의 확립과 대중화를 고민하고 있는 조계종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할 것이라 기대감을, 하산 길의 발걸음이 더욱 경쾌했다.

대구=김성우 객원기자

수행계시판

철야정진 및 트레킹 행사  
부안 내소사는 12~13일 트레킹 템플스테이를 갖는다. 내소산 행선(行禪), 예불, 좌선, 방우공양, 차담 등으로 진행. 한편 12월(매주 둘째) 9시부터 철야용맹정진도 진행. (063)583-3035

금강경 및 참선법회  
김천 민적사는 13일(매일 둘째 일) 오

전 10시 30분에 금강경 법회를, 매일 넷째 토요일 오후 8시에 철야참선법회를 연다. (054)431-1192

영평사 행복수련  
공주 영평사 행복수련원은 매주 토요일부터 7일(주말수련도 가능) 현관 스님의 지도로 심신의 안정과 평안을 되찾는 수련회를 연다. (041)858-2231

평생부자 지갑 음마니반메홍福지갑

동서남북의 재물을 불러 모으는 영험의 지갑

존경하는분께 사업성공의 선물! 사랑하는 아내에게 평생 부자의 선물!



남성용 솔나노 지갑

여성용 銀나노 지갑

원하는 재물과 땅속의 보물까지 얻는 평생 부자지갑!!

역경학적으로 일반폐지해는 12년마다 오지만 정해년 폐지해는 60년마다 온다. 정(丁)은 타오르는 불을 뜻해 붉은 폐지 해라고도 하고 음양의 조화로 붉은폐지 10마리가 모이는 2007년 정해년을 황금폐지해라 한다. 황금폐지해에 결혼을 하면 평생 풍

요롭게 살고 자녀를 낳으면 자녀도 평생부자로 살고, 돈의 집인 지갑을 새로이 바꾸면 돈고도는 돈이 새지갑으로 온다는 좋은 해다. 동서남북의 재물을 모으고 어려움들이 신통토록하게 풀린다는 신묘장구 다라니경에 나오는 육자대명 왕진언 음마니

반메홍 복지갑이 황금폐지해를 맞아 선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점안불공과 축원불공까지 마친 음마니 반메홍 복지갑은 사용해보면 이들의 입소문을 통해 구입할 정도로 신통토록한 신비한 영험이 나타나는 것으로 소문이 났다. 구입한지 보름만에 절망속에 있던 사업이 귀인을 만나고, 안되던 장사가 호황을 누리고, 팔리지 않아 고민하던 점포가 쉽게 팔리고, 부동산으로 큰 돈을 받고, 포기한 돈이 갑자기 들어오는 등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 지갑앞면에는 동서남북의 돈과 복을 부르는 육자대명왕진언을 넣고 지갑내부에는 들어온 돈과 가진 돈이 헛되지 않게 하는 팔길상보병과만사행통의 비방인 반장을 순금도금하여 부착했으며 천연고급소가죽에 금·銀나노 처리까지한 지갑으로 일반지갑과는 비교 될수 없게 제작되어 있다.

600년만에 찾아온 황금폐지해에는 음양의 조화로 남성은 황금브론조색지갑, 여성은 적색지갑에 황금색 라인인 있는 지갑을 사용하면 황금폐지해에 모든 소원이 성취된다. 불광사에서는 음마니반메홍지갑을 사용하실분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100일 축원불공을 올려 드리며,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여성용장지갑 95,000원 남성용중지갑 65,000원

문의전화 02-741-4488  
농협:032-12-193445 이상하

화제의 염주 인도산 자수정 108 염주

승리와 행운의 염주



특별중정품 손목만두

고급케이스에 있어 선물로도 품격!!

평생 행운과 소원을 성취시키는 불멸의 염주

영원히 살아숨쉬는 불멸의 염주

영원히 살아 숨쉬는 인도산 천연자수정 108염주가 시판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자수정은 몸에 지니고 있으면 화를 쫓고 행운과 소망하는것이 이루어지고 사업이 망하지 않는다는 전설이 있어 모자를 쓴 고대 인도 상인과 아라비아 상인들 이마에는 자수정을 꼭 부착하고 다니는 것을 영화에서 자주 본다. 인도산 자수정의 특징은 어떠한 세공을 해도 오염되지 않는 정화수를 주기적으로 주면 자란다는 보석으로 인도인들은 영원불멸의 보석이라고하여 부처님 보석이라고도 한다. 인도산 천연자수정 108염주는 인도에

서 염주알을 가공해 국내에서 조립한것으로 색상도 일정해 품위가 있다. 불멸의 보석으로 일컫는 자수정 염주는 지니고 있는것 만으로도 어떠한 역경이 와도 승리하고 성공한다는 오묘한 뜻이 있어 출시되자 선물로도 인기며 평생사용할 예불법구로 불자는 물론 스님들까지도 신성하고 있다. 신광사에서는 불사금 조성으로 구입고객님의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소원성취와 사업번창을 위한 365일 특별축원불공을 올려드리며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가격95,000원

전화:(02)741-4488  
농협:032-12-193445 이상하

정해년 삼재 소띠, 뱀띠, 닭띠, 삼고금강저 몸에 지니면 삼재화막아!

다쳐화를 미리쫓는 삼고금강저



삼재소멸 축원불공 마치고 시판!!

2007년 정해년은 600년만에 찾아온 재운이 넘치는 황금폐지해지만 삼재가 시작되는 소띠, 뱀띠, 닭띠는 앞으로 삼년간 재난과 고통속에 살을 시작할수도 있는 어려운 해로 2007년에는 자중자재하고 건강을 조심하며 금전관계에 조심하고 관재수가 있으므로 위험하지 말고 일을 벌이면 어려움

을 당할수 있으므로 근신하며 조용히 지내는 것이 좋다. 삼재를 소멸하는 방법은 없지만 다쳐화를 화를 어느정도 막아 큰환란을 모면하는 비방으로 불가에서는 삼고금강저를 몸에 지니고 다니게 한다. 삼고금강저는 인도산(神)의 밀교의식에 쓰이는 불퇴전의 승리의 법구로 만사를 방해하는 잡귀를 물리치고 다쳐을 화를 미리쫓으며 금강의 지혜를 받아 승리한다는 부처님의 위신력의 법구다. 1분앞도 모르는 험한세상 근심과 걱정을 소멸하는 삼고금강저는 안면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가로5cm 폭2cm 금도금하여 금전관계에 조심하고 관재수가 있으므로 위험하지 말고 일을 벌이면 어려움

험을 지니고 달리므로 운행중에 다쳐을 화를 미리쫓고 마음에 안정을 주는 삼고금강저를 운전석위에 염주를 주는 삼고금강저를 운전석위에 염주를 빼고 걸고 다니면 안전하다. 삼재소멸 불공을 마친 금강저는 전화로 신청하면 보내준다. 가격35,000원 자동차용금강저 38,000원

전화:(02)741-4477  
농협:032-12-193445 이상하

자동차용 금강저

사고 예방과 화를 쫓는 영험!!